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 캠프 참가 아동에 음료 제공

남원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위원장 김학경)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전국 단위 소방안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는 제복공무원의 자녀 등 전국의 10~12세 어린이 약 1000여명이 참가해 화재 예방, 응급처치, 구조 체험 등 실질적인 소방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안전 역량을 높였다.

이번 음료는 전북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7월 21일~24일) 기간에 제공되었으며, 무더운 날씨 속 야외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즐거움과 힘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학경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을 직접 배우며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2500만원 상당 '재난·재해 긴급구호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3일 본점 1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무처장 김한규)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재난·재해 긴급구호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폭우와 태풍 산발 등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이재민의 정상적 생활복귀 및 정신적 충격회복을 도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긴급구호키트는 즉석밥, 장조림, 참치캔, 미역국, 즉석카레·짜장 등 9종으로 구성된 비상식량세트 370박스과 아로마오일, 편백주머니, 찜질팩, 비타민 등 6종으로 구성된 마음힐링키트 300박스 등 두 종류로 나눠 제작했으며, 총 670명분의 긴급구호물품은 도내 재난·재해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지원이 시급한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은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올해에도 긴급구호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상황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죽향동, 소비쿠폰 안내교육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장단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죽향동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총 2,853명이며, 이중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만원권 800명, 35만원권 50명, 45만원권 220명으로 총 1,070명에게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신청 병행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 지급 대상 인원의 약 30%만 우선 지원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통장단에 사전 교육, 동민들의 불편 사항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일 1가구 소용행정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임점숙 죽향동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든 주민이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잔치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후원

전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이 이끄는 소비와 나눔 잔치인 전주시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강동오)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동오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장터 운영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은 지난 5월 펼쳐진 '2025 이팝나무 철길개장 행사'에서 함께장터 부스 판매로 마련한 수익금 15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강동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한 판매 수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이번 기부금 전달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2018년 설립 이후 230여 개 회원사와 함께 컨설팅,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덕과면, 돌봄 대상에 냉방용품 지원

남원시 덕과면(면장 박종민)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물매트'를 지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급함으로써 체감온도를 낮추고 아간에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총 20가구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도 안내하는 한편,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생명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남원시보건소가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해 올해 계획된 총 4차례 정기교육 중 첫 번째로 진행되며, 남원시보건소는 이 외에도 관내 기관·학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응급처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보건기관 종사자,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책임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으며,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소개 △심정지 발생 시 대처법 △교육 모형과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남원시보건소는 올해 총 4회의 정기교육 외에도 관내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보건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앞으로도 정기교육과 상시교육을 통해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도청지점, '시원(COOL) 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주민센터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COOL) 키트' 41박스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송천1동 주민센터 전지현 동장, 전북은행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시원(COOL) 키트'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

/오상근 기자

전북새일센터, 청년특화프로그램 본격 추진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특화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과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회복,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자신감·자기효능감 회복 프로그램은 심리카드를 활용한 그룹 교육으로 참여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포터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도 함께 제공한다.

이어 취업정보 탐색 프로그램은 챗GPT 등 AI툴을 활용해 최신 기업 정보, 직무 정보, 산업 동향을 탐색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번째로 취업계획 수립 프로그램은 노선을 활용해 체계적인 취업정보 정리, 취업 스케줄 관리,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등을 익힌다. 개인별 맞춤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NCS활용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기인성적검사, 공기업·공공기관 NCS활용 대비 문제풀이 지원 등 모의테스트, 시력량 검사를 통한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치위생과 학사학위, 포스터 전시 동상 수상

전주거전대학 치위생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들이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치과위생사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학술 포스터 전시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치과위생사의 미래: 혁신·통합·역량·공간'이 주제로 전국의 치과위생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전주거전대학 치위생과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은「신입 치과위생사 직무교육에 대한 실태·경력 치과위생사의 인식 차이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의 세대 간 시각 차이에 주목해 신입 인력의 적응력 향상과 병원 조직 내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상상카페', 장학금 2백만원 기탁

무주군가족센터가 23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정성철 무주군가족센터장은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무주상상반디술 내 상상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무주지역 아이들의 학업을 뒷받침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라며 "무주군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무주상상반디술' 1층에 지리한 '상상카페'는 무주군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지원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3명과 센터 직원들이 함께 원두커피와 레몬티 등 다양한 음료를 직접 제조·판매하며 다문화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산업공학과 졸업생, 취업수기 최우수상 등 수상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능형 기계부품 학사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취업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김미경 졸업생(21학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졸업생은 2023~2024년 지능형기계부품사업 특성화과정에 참여, 지능형기계부품사업의 글로벌 리더의 꿈, 여기가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솔한 취업 준비 경험과 성장 이야기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성 기자



무주자봉센터, 삼계탕·누룽지 등 보양식 나눔

(사)무주자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23일 무주군 지역에 홀몸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 200세대에 '2025 건강한 여름나기 착! 착! 착!' 사업을 진행해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낼수 있도록 삼계탕과 누룽지등 보양식을 준비하여 나눔을 실천했다.

이강우 이사장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건강한 여름 착! 착! 착!' 사업을 공모해 진행하게 돼 기쁘고 보양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길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